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관광어촌의 유형화

- 제주도를 사례로 -

송 경 언*

Spatial Types of Tourist Fishing Villages in Jeju Island

Kyung-Un Song*

요약: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는 어촌 외부와의 접근성 보다는 어촌 내부의 관광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어촌 관광자원의 영향을 받아 입지하는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는 낚시와 수산물 채취·채포의 바다, 수산물 조리점과 민박의 해안으로 구분되므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기본 유형은 바다지향 어촌, 해안지향 어촌, 바다·해안 지향 어촌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관광기능 위치가 중심어촌 외부인 해수욕장 인접 어촌과 어촌으로의 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도서 어촌이 관광기능 위치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에 있어 관광기능의 위치가 바다일 때 해안인 경우보다 어업활동과의 관련성과 어촌공간과의 통합도가 높고,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과 도서 관광어촌은 각각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지님으로써 다른 유형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는 각 유형간 어촌과의 관련성에서 차이가 드러나므로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볼 수 있다.

주요어: 어촌, 관광어촌, 바다지향 관광어촌, 해안지향 관광어촌, 바다·해안지향 관광어촌

Abstracts: The location of tourist function is influenced by the accessibility of fishing villages and tourist potential in the villages. In Jeju island, the accessibility of fishing villages is not enough of a difference, therefore tourist potential in the villages ha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tourist location. In the location of the tourist function, there is all the difference between sea or land. Because sea and land are a remarkable contrast in physical condition and tourist activity space. Consequently, the basic types of the tourist location are sea-oriented, land-oriented, sea·land-oriented. Besides, fishing villages adjacent to the beach and islands are to be the types of the tourist location. The former is not central fishing village in the tourist location, the latter is not good in the accessibility of the basic three types. And the location of the tourist function ha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difference of tourist fishing villages, therefore the types of the tourist location is to be the types of tourist fishing villages.

Key words: Fishing village, Tourist fishing village, Sea-oriented tourism, Land-oriented tourism, Sea·land-oriented tourism

1. 서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로의 공간적 행동이 증가함으로써 원격지 어촌 기능은 급격히 쇠퇴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어촌의 관광지화에 따라 도시로부터 촌락으로의 왕래가 발생함으로써 어촌공간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촌의 관광지화 배경은 관광지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어촌기능의 쇠퇴와 관광지화의 수용에 유리한 어촌기능의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관광지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어촌 기능의 쇠퇴로, 어촌의 기능은 어업 활동과 어촌 생

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활동의 쇠퇴에 있어 그 지표로는 어업 가구수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농업 가구수 감소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 고자 한다. 1965~1993년 기간의 어업가구 감소율은 51.4%로 절반 정도 감소한 반면, 농업가구의 감소율은 40.1%로 어업가구 보다는 감소정도가 덜하다¹⁾.

이러한 어업활동의 쇠퇴는 잡는 어업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감소, 환경오염에 따른 어장의 황폐화, 국토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간척사업 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전경수, 1992, 4-5). 특히 어업자원의 감소는 수산물의 인위적 생산 가능성이 농산물보다 제한되므로, 어업활동의 쇠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 생활환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kusong2030@hanmi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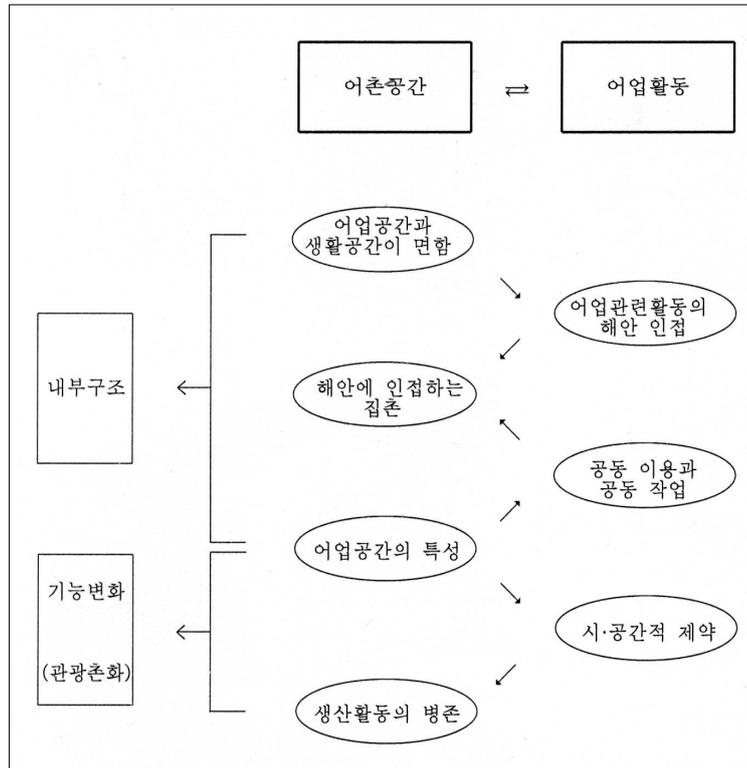


그림 1. 어촌공간과 어업활동의 관계

경의 쇠락에 대해서는 어촌 인구수로서 살펴볼 때, 이는 농촌 인구수와 비교하고자 한다. 어촌과 농촌을 각각 원격지 臨海 面部, 전국 면부 등으로 보면, 원격지 임해 면부와 전국 면부의 1975~1995년 인구 감소율은 각각 53.6%와 57.1%로²⁾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어촌의 생산활동은 겸업가구의 비중이 높고³⁾ 이 가운데 서비스업 소득의 비중이 증가함⁴⁾으로써 농촌의 생산활동 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농촌과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관광지화의 수용에 유리한 어촌기능의 특성이다. 어촌의 관광지화는 다른 촌락에 비해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활동의 질적 변화와 더불어 어촌이 그러한 관광활동으로의 변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관광활동의 질적 변화는 생태를 직접 대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의 흐름으로, 이에 따라 관광활동은 생태 보전이 양호한 촌락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생태관광은 촌락 가운데서도 바다와 땅으로 특수하게 구성되며, 다양한 생태를 지닌 어촌에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가 바다라는 어업공간에서 비롯되는 어업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은 생산활동들의 병행을 가져오는데, 생산활동이 병행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새로운 생산활동인 관광관련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원격지 어촌을 대상으로 관광지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관광어촌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과 이에 따른 관광기능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기능의 어촌 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볼 수 있는가를 사례어촌별 비교를 통해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된 것은 어촌으로의 접근성 차이가 크게 나지않아 관광지화에 영향을 미치는 어촌의 공간적 특성 가운데 접근성 보다는 관광자원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라는 동일 유기체 안에서의 어촌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어촌 연구와 관광어촌의 유형화 연구

1) 어촌과 관광어촌에 대한 정의

어촌이란 바다, 강, 호수에서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가공, 제조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이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1991, 36). 어촌 판별을 위한 지표로는 어촌 주민 가운데 농업종사자들이 오히려 많은 경우가 흔하므로, 어업종사자의 수 또는 비율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수치가 어촌이라는 생활공간의 실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어촌은 어업공간이 공동이용되고, 공동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즉, 어장과 어항은 대개 공동으로 이용하며, 어로활동은 어선을 이용하므로 공동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은 대체로 소규모 어항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어항⁵⁾을 끼고 있는 촌락은 중심어촌⁶⁾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항을 끼고 있는 촌락은 어촌 기초생활권에 있어 생산의 중심이나 생활의 중심으로는 보기가 어려워 이를 중심어촌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관광어촌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촌공간에 대한 구분은 어업활동의 중심인 중심어촌과 그렇지 않은 배

후어촌으로 나누고자 한다(그림 2). 그리고 배후어촌 판별에 있어 기능적 지표는 중심어촌으로의 도모에 의한 접근 가능성이고, 등질적 지표는 어업공간의 공동이용을 반영하는 어선 두 척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은 소규모 어항을 끼고 있는 중심촌락과 그 인접 촌락 중 두 척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어촌이란 어촌의 대표적 생산활동인 어업과 관광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촌의 관광관련활동 비중은 주민의 생산활동과 관광활동 특성상 높지만은 않다. 어촌주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관광관련활동이 대체로 기존 생산활동과 병행되며, 관광활동 특성에 있어서는 어촌의 관광기능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목적지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어촌이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관련 기능이 하나 이상 분포하는 어촌이라 보고자 한다. 한편, 관광기능 분포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어업공간과 어업관련기능이 분포하는 공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활동은 이들 공간을 벗어나면 어업관련활동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업관련기능은 어선이 어항에 머무르는 동안 생산물을 물으로 전달하고 생산활동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선 및 어구 정비시설, 제빙시설, 선원의 숙식 및 휴식 장소, 어업활동조직의 공동시설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어업관련기능이 분포하는 곳을 해안이라 보고자 한다.

2) 어촌에 대한 연구

어촌공간을 구성하는 생활공간과 어업공간은 각각 땅과 바다이므로, 두 공간의 이용은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어촌에 대한 연구 분야는 생활공간과 어업공간 가운데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생활공간과 어업공간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인류학과 사회학, 어업공간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과 해양학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리학은 어업공간과 생활공간이 기능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류학과 사회학은 특수한 환경에 대한 어민의 적응이라는 차원이다. 이와는 달리 생태학과 해양학은 생활공간과는 분리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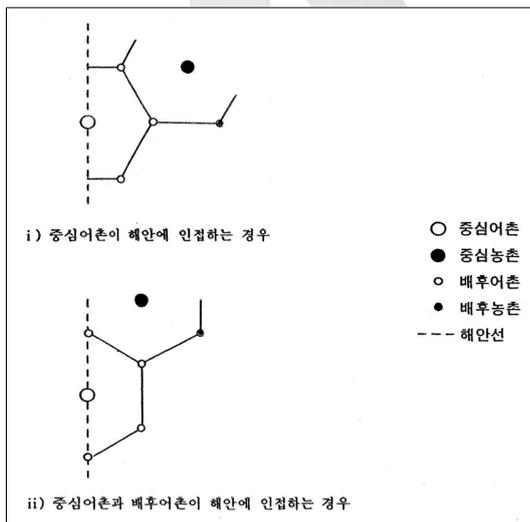


그림 2.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위치

다 자체의 생태와 환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지리학에서의 어촌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어촌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촌락 단위의 인문공간을 대상으로 어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수성 연구는 가장 일반적인 기능의 촌락인 농촌에 비교되는 특수한 내부구조를, 다양성 연구는 자연의 지배적 영향을 받는 다양한 어업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지리학적 어촌연구에 대한 구분은 어촌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인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그림 1)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어촌의 생산활동과 어업공간 각각에 대한 연구이다. 어촌 생산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촌락의 어업활동과 이와 병존하는 겸업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어업공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어업활동의 근거지인 어항에 대해서는 1970년대를 중심으로 초기적 성과가 이루어졌고, 어장의 생태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시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촌락 내부구조에 대한 연구이다. 어항을 중심으로 집촌이 형성되는 내부구조는 어업활동의 해안인접과 공동적 성격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그 형태와 기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어촌연구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셋째, 어촌의 기능변화 즉, 관광촌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어업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여러 생산활동의 병존과 관련된 것이다. 어촌의 관광지화에 대한 연구는 관광촌화의 과정과 관광기능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로 관광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어촌공간의 특수성에 대한 적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어업활동과 그 경험의 전승, 어업공간의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에 따른 어업활동의 조직화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과 어업의 역사에 대한 연구와 어촌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지역지리적 연구를 들 수 있다.

한편, 여타 학문에서의 어촌연구는 어업활동의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어업공간의 공동이용

과 공동작업, 어업활동의 시·공간적 제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업공간의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에 대해서는 공동작업과 그 조직인 어촌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편이다. 어업활동의 시·공간적 제약과 관련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연구와 이러한 제약에 적응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가 있다.

3) 관광어촌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관광어촌의 유형화 연구에 대한 고찰은 관광어촌 뿐만 아니라, 어촌이 위치하고 있는 해안의 관광지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첫째, 해안지역 관광지의 기본적 유형을 민박형과 리조트형 등으로 구분하고, 관광지 특성이나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발달정도와 규모의 차이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고 한 연구를 들 수 있다(淡野明彦, 1998).

민박형 관광지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여관에 버금가는 민박시설이 많이 갖추어지더라도 해수욕과 민박으로 이루어지는 기본형태는 변하지 않고, 해수욕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이외에도 어패류 음미를 위한 관광활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박형 관광지의 형성 조건은 등질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등질적 조건은 해수욕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빈과 민박을 운영할 수 있는 노동력의 존재이다. 사례의 경우, 잠수어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사빈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잠수어업의 비효율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노동력의 잉여는 민박운영에 긴요하게 되었다. 기능적 조건은 대도시 주변의 해수욕장 쇠퇴와 원격지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교통의 발달을 들었다. 한편, 민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관광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관광지 주민들은 민박 기능에는 어패류등의 물자와 서비스, 관광객에게는 식사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제공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리조트형 관광지는 모든 시설이 처음부터 전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경유형이라기 보다는 체제형이라고 하였다. 리조트가 입지하기 위해서는 경관이 수려하고 기후조건이 탁월한 넓은 면적의 땅과 바다를 단기간내에 확보해야한다고 한다. 즉

해안 리조트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을 위해 탁월한 자연조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기능과 토지이용 경쟁을 하게 되는 기존 토지의 생산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의 입지조건으로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 제공, 유리한 교통 조건, 민간자본의 참여 등을 들었다.

그리고 복합형 관광지는 관광지내에 경관감상과 해수욕 등 개별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여러 관광지가 가까이 위치하고, 교통조건과 참여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다. 관광객 으로서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각각의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관광루트의 설정이 용이하다. 복합형 관광지역은 등질지역인 단일형 관광지역들이 조합하여 이루어진 기능지역의 구조를 가지며,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등질적 관광지역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둘째, 한국 어촌에 대한 개괄적 차원의 연구로, 민박 중심의 관광어촌과 수산물 판매 중심의 관광어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김일기, 1998). 민박 중심의 관광어촌은 1970년대 동해안의 해수욕장 및 그 밖의 관광지와 인접한 곳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고 한다. 동해안의 민박이 주로 여름철의 해수욕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서·남해안에서는 바다낚시가 발달함에 따라 해수욕객들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객도 이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생선회, 건어물, 젓갈 등 수산물 판매 중심의 관광어촌은 1970년대 초에 주로 대도시 인접 어항을 중심으로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자가용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원격지에도 분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관광어촌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로부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기존의 관광어촌 유형화에 대한 연구들은 어촌 공간의 범위를 바다를 제외한 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촌공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어업관련활동이 이루어지는 땅과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를 포함하는 것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땅 뿐만 아니라 바다도 어촌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공간

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촌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한 후 관광어촌의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3.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

1) 어촌의 기능적 특성과 분포

(1) 어촌의 기능적 특성

중심도시와의 관계를 지표로 하는 어촌의 기능적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어촌의 유형화 논의가 갖는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어촌의 기능적 유형화로, 이는 원격지 어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림 2>는 어촌 중심지의 계층이 최하위 공간일 때의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어촌과 농촌의 기능은 배타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배후 어촌공간은 중심어촌 뿐만 아니라 중심농촌의 영향권에도 포함되며, 중심농촌의 영향권에는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어촌과 농촌의 기능은 배타적이지 않으나, 그 내부구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초생활권에 있어 어업활동의 중심인 어항공간은 바다에 인접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촌과는 달리 생산활동의 중심인 어항공간이 생활의 중심이 되기에는 곤란하다. 이를 일상생활권으로 확대시키면 어촌 중에는 일상생활의 중심지가 어항을 끼고 있지 않은 도시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어촌에서는 해안에서 떨어진 농촌중심도시를 일상생활의 중심지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촌 생활의 중심도시 위치는 어항으로부터 도보통행권인 어촌공간과 공간적으로 통합되거나 분리되며, 어촌공간과 통합된 중심도시는 어촌중심도시이고, 어촌공간과 분리된 중심도시는 농촌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다. 어촌중심도시는 배후농촌의 생활과 생산관련 행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반면, 농촌중심도시는 배후어촌의 생활관련 행동의 중심은 될 수 있으나 생산관련 행동의 중심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어촌중심도시는 농촌중심도시라고도 할 수 있으나 농촌중심도시는 어촌중심도시라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어촌지역은 농촌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

표 1. 시·군별 전체공간에 대한 어촌공간의 비중 1997년 (%)

	행정리·법정동 단위 어촌공간 수 / 전체 행정리·법정동 수	행정리·법정동 단위 어촌공간 인구 / 전체 인구
계	97 / 235 (41.3)	159,913 / 528,360 (30.3)
제주시	7 / 40 (17.5)	18,224 / 266,316 (6.8)
서귀포시	7 / 22 (31.8)	24,169 / 84,976 (28.4)
북제주군	49 / 97 (50.5)	66,387 / 98,417 (67.5)
남제주군	34 / 76 (44.7)	51,133 / 78,651 (65.0)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97년.

는다. 따라서 원격지 어촌공간은 기본적으로 중심이 어촌중심도시인 어촌지역 어촌과 중심이 농촌중심도시인 농촌지역⁷⁾ 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⁸⁾, 제주도의 어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중심도시가 모두 어촌중심도시인 배후어촌을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어촌지역 어촌의 접근성은 농촌지역 어촌보다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안지역 간선도로가 해안에 면하는 어촌중심도시와 그렇지 않은 농촌중심도시를 연결함으로써, 어촌지역 어촌은 농촌지역 어촌에 비해 중심도시간 도로로부터의 평균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어촌지역 어촌의 관광관련기능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규모의 관광어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도서 공간은 일상생활의 중심도시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심도시와 도서간 시간적 거리에 의해 해안도서, 연안도서, 낙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지역)도서는 섬 자체에 중심도시가 있거나 물의 중심도시로 통근·통학이 가능한 곳이어서 물의 원격지 어촌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안도서는 중심도시로의 왕래에 하루가 소요되는 곳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중심은 해안중심도시와는 꽤 독립적인 소도읍이 된다. 낙도는 연안도서 보다 물에서 더 떨어진 섬으로, 이 곳의 생산활동과 생활은 상당히 고립적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의 도서어촌이 분포하는 우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은 모두 중심도시로의 왕래가 하루에 가능하므로 연안도서라고 할 수 있다.

(2) 어촌의 분포

어촌의 공간적 단위를 행정리 또는 법정동으로

하고⁹⁾,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는 곳을 어촌으로 본다¹⁰⁾, 제주도 어촌 수는 북제주군 49곳, 남제주군 34곳, 제주시 7곳, 서귀포시 7곳 등 모두 97곳이다¹¹⁾.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전체공간에 대한 어촌공간의 비중을 행정리·법정동 수로 보면 두 곳 모두 절반 정도이고, 행정리·법정동 단위 어촌공간 인구는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68%, 65% 정도를 차지한다.

2) 공간조직과 접근성

(1) 공간조직

행정리·법정동 단위의 어촌공간 내부의 공간조직은 자연촌락 단위의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수적 관계와 배후어촌의 해안인접 정도(표 2)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수적 관계는 중심어촌 이외에 어업활동과 관련 있는 촌락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배후어촌의 해안인접 정도는 배후어촌의 어업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다¹²⁾.

첫째,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수적 관계이다. 행정리·법정동 단위의 어촌공간 내부에 있어 자연촌락 단위의 중심어촌 1곳 당 배후어촌 수의 평균은 1.80(175/97)이고¹³⁾, 각 어촌공간들은 먼저 중심어촌에 배후어촌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배후어촌이 존재하는 어촌공간은 모두 73곳으로 전체 97곳의 75.3%를 차지한다.

둘째, 배후어촌이 존재하는 경우는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안에 인접한 배후어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업활동의 정도도 높다는 것을 의미

KCS I

KCS I

한다.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한 곳은 모두 37곳으로, 이 가운데에는 구좌읍(9곳), 한림읍(6곳), 성산읍(5곳) 등이 54.1%를 차지한다. 한편,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지 않는 곳은 36곳으로 인접한 곳의 수와 거의 일치한다.

(2) 접근성

제주도는 화산섬의 영향으로 생산활동이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등 고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거주공간은 環狀으로 분포한다. 취락이 분포하는 곳은 대체로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이고¹⁴⁾, 중심도시 가운데 제주시는 해안지대의 북쪽에, 서귀포시는 해안지대의 남쪽에 위치한다. 두 중심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해안지대, 중산간지대 산간지대 등을 통과하고¹⁵⁾,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의 마을간에는 지선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지대에 위치하는 마을은 그 지대의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대의 간선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반도부의 경우, 중심도시 간 간선도로에 인접한 마을과 떨어진 마을간의 접근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 마을에 대한 접근성은 반도부 보다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해안도로도 어촌공간에 대한 접근성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의 행정리·법정동 단위 어촌공간별 접근

성 차이에 대한 분석은 간선도로 통과 지점이 중심어촌 거주공간, 배후어촌 거주공간, 어촌 거주공간의 외부 등 셋 가운데 어디에 위치하는가로써 살피고자 한다¹⁶⁾. 간선도로 통과 지점을 접근성이 양호한 순으로 나타내면, 중심어촌 거주공간, 배후어촌 거주공간, 어촌 거주공간의 외부 등이다. 간선도로 통과 지점이 중심어촌 거주공간인 곳은 19곳, 배후어촌 거주공간은 39곳, 어촌 거주공간의 외부는 39곳 등으로, 어촌 거주공간 내부를 통과하는 곳(58곳)이 전체의 59.8%를 차지한다(표 2).

4.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와 어촌공간상 위치

1)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관광기능 분포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관광기능 분포¹⁷⁾(표 3)에 대한 분석에 있어 공간적 특성은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으로, 관광기능 분포에 대한 분석은 관광어촌 분포¹⁸⁾와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로 구분하고자 한다(표 4).

첫째, 어촌의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에 따른 관광어촌의 분포이다. 어촌의 해안인접 정도에 따른 관광어촌의 분포에 있어 큰 차이는 없으나,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할 때의 어촌에 대한 관광어촌 비율이 75.7%로서 가장 높은 편으로, 이는 어촌이

표 4.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에 따른 관광어촌 분포와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

<관광어촌 분포>

관광어촌 수 / 어촌 수, (%)

ΣΣ = 67/97 (69.1)		접근성 (간선도로 통과 어촌)		
		중심어촌 Σ=10/19 (52.6)	배후어촌 Σ=25/39 (64.1)	어촌공간 외부 Σ=32/39 (82.1)
해안 인접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지 않음 Σ=23 /36 (63.9)	4/8 (50.0)	13/22 (59.1)	6/6 (100.0)
정도 ~ 배후 어촌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함 Σ=28/37 (75.7)	5/6 (83.3)	12/17 (70.6)	11/14 (78.6)
위치 ~	배후어촌이 존재하지 않음 Σ=16/24 (66.7)	1/5 (20.0)		15/19 (78.9)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

관광기능별 어촌 수(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어촌 수)*

		접근성 (간선도로 통과 어촌)								
		중심어촌			배후어촌			어촌공간 외부		
		낙시	횃집	민박	낙시	횃집	민박	낙시	횃집	민박
해안 인접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지 않음	2	4	2(1)	7(1)	12(3)	9(3)	4(1)	5(2)	5(1)
정도 (배후 어촌)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함	4(1)	5(1)	5(2)	9(2)	11(1)	9(3)	6(2)	8(3)	11(6)
위치 (배후 어촌)	배후어촌이 존재하지 않음	1						8(1)	9(1)	10(2)

주* : 관광기능별 어촌 수는 하나 이상 분포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였고,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어촌 수에 있어 낙시는 낙시어선 수가 6척이상, 횃집은 5곳 이상, 민박은 10곳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함.
 자료 : 1:50,000 지형도 (국립지리원, 1995년), 제주의 포구 (제민일보사, 1992년 6월-1995년 1월).
 민박: 제주도, 1999, "관광정보" 제주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횃집: 한국통신, 2000, 전화번호부.
 낙시어선: 제주시는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서귀포시는 주민면접,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내부자료.

해안에 인접할 수록 즉, 어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수록 관광어촌도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어촌의 접근성에 따른 관광어촌의 분포는 접근성이 불리해짐에 따라 관광어촌의 비율은 52.6%, 64.1%, 82.1% 등으로 점차 높아짐으로써, 관광어촌의 분포가 접근성의 유리함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촌의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면, 배후어촌이 존재하지 않고 간선도로가 중심어촌을 통과하는 경우가 어촌에 대한 관광어촌의 비율이 20.0%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둘째, 어촌의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에 따른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로, 관광기능이 하나이상 분포하는 어촌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에 있어 접근성이 가장 유리한 어촌은 그렇지 않은 어촌에 비해 낙시어선, 횃집, 민박 등 모든 관광관련기능이 적게 나타난다.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어촌에 있어서는 낙시어선은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는 어촌에 많고, 횃집은 배후어촌이 존재하는 어촌 가운데 간선도로가 배후어촌이나 어촌외부를 통과하는 어촌에 많다. 이는 낙시어선 분포는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의 영향을 받으며, 횃집 분포는 접근성의 유리함과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안인접 정도와 접근성 차이의 조합에 의한 8개¹⁹⁾의 각 경우에 있

어 관광기능별 어촌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어촌에 있어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고 접근성이 가장 불리한 어촌의 경우 민박은 6곳으로 낙시와 횃집보다는 상당히 많다. 이는 도서어촌의 많은 민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관광기능 분포에 있어 해안에 인접한 어촌일 수록 낙시어선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접근성의 유리함은 관광기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 관광어촌에 대한 유형화가 어촌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어촌 내부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유형화

제주도는 반도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화산섬이다.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인해 도외 관광객은 반드시 숙박을 하게 되며, 화산섬이라는 지형으로 인해 많은 해안 관광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해안에 위치한 마을의 대부분은 어촌이고, 각 어촌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양호할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도 어촌간 관광지와의 차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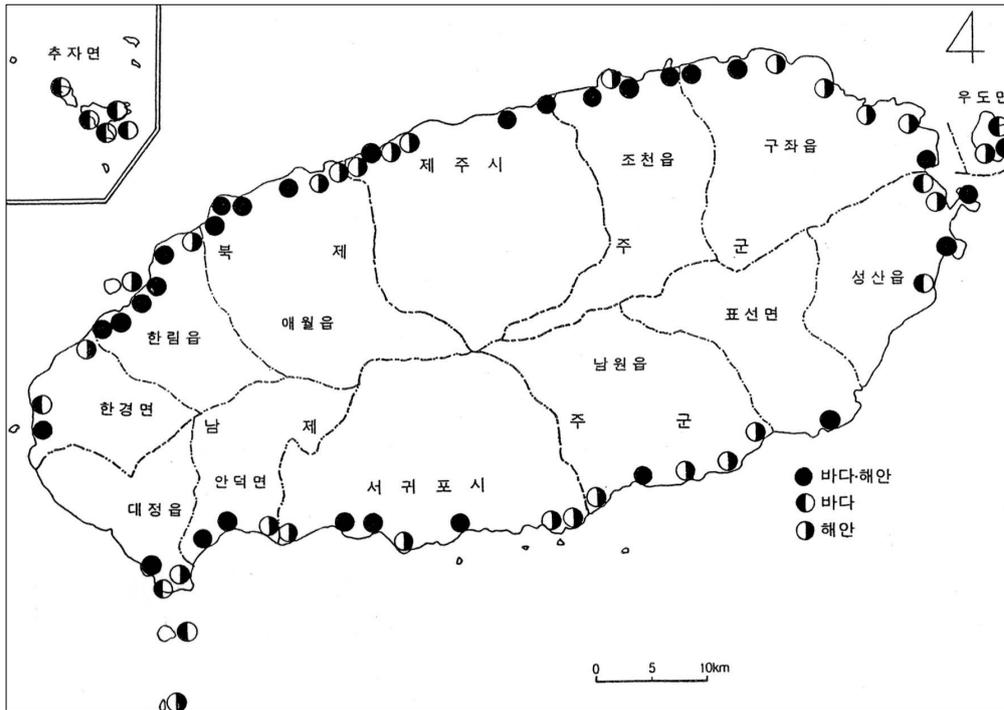


그림 3. 제주도 어촌별 관광기능의 입지공간

도의 어촌을 사례로 한다는 것은 원격지 어촌의 관광자원 분포에 따른 관광어촌의 유형화를 살피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관광자원의 분포와 관련된 것으로서 관광기능의 입지 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촌 내부구조를 구성하는 공간은 바다, 해안, 생활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관광기능 위치는 대체로 바다와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촌관광은 곧 바다를 찾는 것이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은 대체로 해안까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광어촌의 생산활동은 바다와 해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바다와는 달리 해안은 땅이며, 바다는 해안보다 자연조건의 영향을 더 받을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과 연관된 관광관련활동은 바다에서 보다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성격은 어촌 공간상 위치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 관광어촌에 대한 유형화도 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제주도 어촌의 관광관련기능에는 낚시어선,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 수산물 조리점²¹⁾, 민박 등이 있고, 관광관련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는 낚시어선

과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은 바다, 수산물 조리점과 민박은 해안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어촌공간에 있어 관광관련기능 위치의 조합은 바다, 해안, 바다와 해안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3>는 제주도 어촌별 관광기능의 입지공간을 나타낸 것으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는 문헌상의 2차 자료²¹⁾를 이용하였다²²⁾. 관광기능이 분포하는 제주도 어촌은 모두 67곳으로, 전체 97곳의 70% 정도가 관광어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관광기능 위치별 어촌 수는 바다 12곳(17.9%), 해안 26곳(38.8%), 바다·해안 29곳(43.2%) 등으로, 관광기능이 바다와 해안에 모두 위치하는 곳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그런데 관광기능이 바다와 해안에 모두 위치하는 곳은 각 공간별 관광기능들이 관광지를 찾도록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사례어촌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관광기능이 바다와 해안에 위치하더라도, 관광활동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관광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지배적 관광기능이 위치하는 공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본다면 어촌에 따라서는 바다지향 어촌, 해안지향 어촌 등 어느 하나의 관광기능에 의한 어촌

공간상 위치의 유형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²³⁾

그리고 바다지향 어촌, 해안지향 어촌, 바다·해안지향 어촌 등과 같이 관광관련기능 위치의 조합에 의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유형구분에 있어 전체는 관광기능 위치가 중심어촌 내부이고, 어촌으로의 접근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인데 이러한 전체를 각각 탈피함으로써 새로운 유형들을 더 찾을 수 있다. 첫째, 관광관련기능이 중심어촌 외부에 위치하는 것은 내부인 경우와는 차이를 보이며,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수욕장 인접 어촌이다. 둘째, 제주도라는 섬에 부속되는 섬의 관광어촌은 제주도라는 섬에 위치한 관광어촌과는 접근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즉, 부속 도서의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편을 이용하여야만 하고, 단시간 관광이 아닌 경우에는 섬 내부에서 숙박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추가되는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두 유형은 해수욕장 인접 어촌과 도서 어촌이며, 이들은 각각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지닌다. 요컨대, 관광관련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유형은 바다지향 관광어촌, 해안지향 관광어촌,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 도서 관광어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바다지향 관광어촌, 해안지향 관광어촌,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등 기본 유형은 관광기능의 위치가 중심어촌의 바다 또는 해안이고,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과 도서 관광어촌의 관광기능 위치는 각각 중심어촌 외부와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바다 또는 해안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기능 위치에 의한 각 유형은 결국 그 위치가 바다 또는 해안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관광기능 위치별 사례어촌에 대한 비교 고찰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각 유형의 사례어촌별 고찰은 유형별 어촌과의 관련성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다. 각 유형별 관광기능의 어촌과의 관련성은 어업활동과의 관련성, 관광관련활동의 참여 또는 관광지 개발 주

체,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 등으로 살펴본다.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은 관광관련활동의 어업활동과의 병행정도와 관광기능의 해당어촌 수산자원의 이용 정도에 따라 살펴볼 수 있고, 참여 또는 개발 주체는 관광관련활동의 종사자와 관광지 개발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은 어촌내부의 다른 주민과의 통합 정도와 관광관련활동 종사가 구에 있어 어촌의 내부와 외부간 거주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어촌공간과의 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가 된다. 한편 사례어촌에 대한 기술 내용은 관광기능 위치에 의한 각 유형간 차이가 결국 그 위치인 바다 또는 해안인가에 따라 나타나므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를 바다와 해안으로 구분하고 바다의 관광기능과 해안의 관광기능이 어촌과의 관련성에서 나타내는 차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술방식은 바다와 해안에 위치하는 관광기능을 비교함으로써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의 각 유형간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사례어촌은 각 관광어촌 유형별로 널리 알려져 있어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바다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맛조개 잡이로 이름이 나있는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 해안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중문관광단지'에 인접함으로써 해안의 수산물조리집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 바다·해안 지향의 관광어촌으로는 낚시어선이 많고 바다낚시와 연계된 수산물조리집이 위치하는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으로는 제주도의 대표적 해수욕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바다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도서 관광어촌으로는 최남단 섬으로 이름이 나 있는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가 선정되었다(그림 4).

사례 조사는 1999~2001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례어촌의 자료조사 기준 연도는 2000년이다. 면접 대상은 사례어촌의 생산 및 생활에 대해 정통한 주민을 선정하였고, 면접 대상자 수는 사례어촌별로 5명(함덕리)~12명(고산리)으로 총 47명이다.

바다에 위치하는 또 하나의 관광기능인 낚시 어선의 경우, 어로활동 종사자 29명 중 20명(69.0%, 2000년 기준)이 바다낚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바다낚시에 적합한 5톤미만의 어선 보유자 25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80.0%에 해당된다. 바다낚시 참여자는 모두 한치잡이 중심의 어로활동과 농업활동을 병행한다. 어로와 농사를 병행해 오던 남성이 이와 더불어 어로와 낚시를 병행하는 것이다. 바다낚시의 성수기는 당근, 감자 등 대표적 농작물의 수확시기와 겹치지 않으나, 한치잡이의 성어기와는 부분적으로 중복된다. 그러나 바다낚시는 한치잡이의 부수적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둘이 경쟁관계를 이루는 8월 한달 동안은 대체로 한치잡이가 많이 이루어지며, 바다낚시와 한치잡이가 각각 낮과 밤에 이루어지므로 드물지만 둘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해안의 관광기능으로는 횃집 2곳, 음식점 1곳, 도항선 대합실의 잡화점 1곳 등이 있다. 횃집과 음식점에서의 관광활동은 바다 낚시와 수산물 채포라는 체험활동과 대체로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이라는 관광활동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광객들이 특수한 수산물의 음미를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식사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횃집 가운데 1곳은 어촌계 소유의 횃집으로 잠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용자 부족, 운영 미숙, 참여잠수에 대한 경시풍조 등의 이유로 유지되지 못하고 1990년대 말 개인에게 임대된 것이다. 해안에 위치하는 또 다른 종류의 관광기능인 종달리~우도간 도항선 대합실 잡화점은 잠수와 농사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2명이 교대로 종사하고 있는데, 잠수활동이 불가능한 시기에는 잠수종사자가,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농업종사자가 나온다. 도항선 대합실 건축에는 북제주군과 선박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대합실 내의 잡화점과 매표소는 각각 종달리와 선박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해안의 관광기능 가운데 1990년대 말에 출현하였던 기념품점은 이용자 부족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종달리의 대표적 관광활동인 맛조개 잡이 또는 바다낚시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광관련활동 종사자들은 대부분 토착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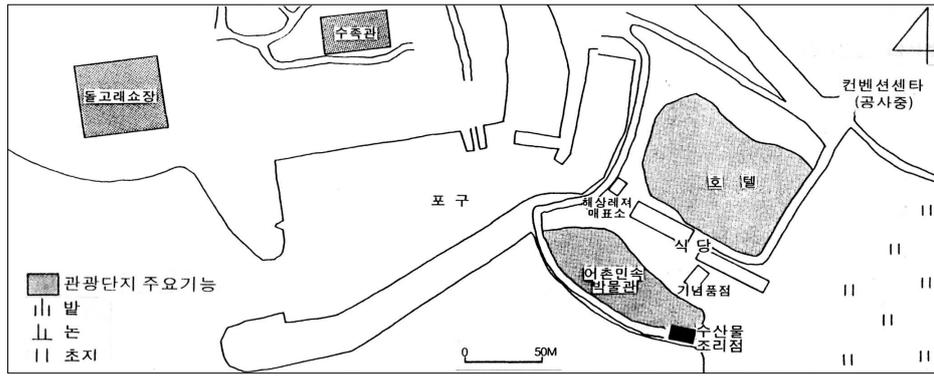
나, 횃집과 음식점 종사자들은 모두 이주민이고, 제주시, 성산리, 하도리 등에서 통근하고 있다.

(2) 해안지향 관광어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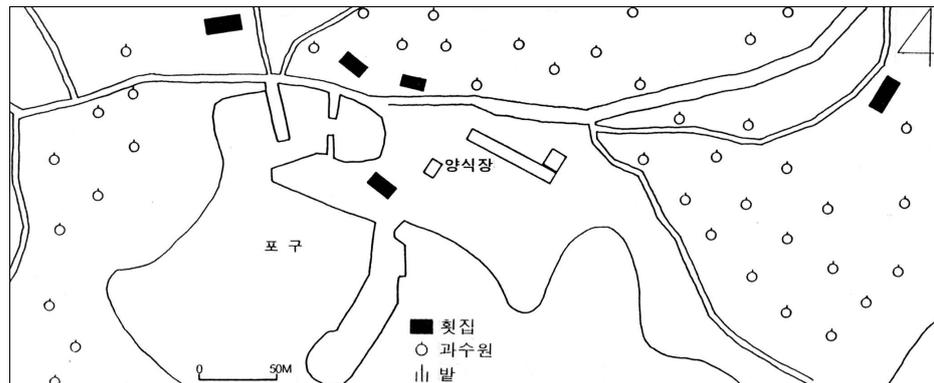
서귀포시의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은 인접한 마을이나, 두 곳의 대표적 관광관련기능인 해안의 수산물 조리점(그림 6)은 각각 '중문관광단지'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해 있고 도보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두 어촌의 대표적 관광기능인 수산물 조리점이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중문관광단지 내부의 수산물보다 저렴하며 바다를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관광기능 밀집지구가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에 인접함으로써 수산물 조리점은 밀집지구의 부차적 기능으로서 입지하게 된 것이다. 즉, 관광밀집지구의 기능과 보완적인 관광관련기능은 지속되는 반면, 어울리지 않는 기능은 입지하기가 쉽지않게 된다. 바닷가의 수산물 조리점은 관광밀집지구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반면, 바다낚시는 관광밀집지구 기능과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어촌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해안지향 어촌에 있어 관광기능의 어촌과의 관련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으로 이는 어업활동과의 병행정도와 어업생산물의 이용정도로써 살필 수 있다. 어업활동과의 병행에 있어 중문동의 수산물조리점 참여자들은 어업활동과 병행하는 반면, 대포동에서는 수산물조리점에 전업으로 참여한다. 중문동의 수산물 조리점 참여집단은 잠수어업을 시간적으로 병행한다. 잠수어업의 작업가능기간은 매월 14일 동안이고, 잠수 작업은 대체로 일주일 주기로 연중 반복되므로, 수산물조리점 참여 잠수 12명은 세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점포에 나온다. 수산물 조리점에 나오는 날짜가 잠수작업 기간에 해당되면, 해당 조의 4명 가운데 1명만 잠수작업에 참여하고, 3명은 수산물조리점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업생산물의 이용정도에 있어서는 중문동 수산물조리점의 상품은 명게와 낙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에서 조달되나, 대포동 횃집의 수산물은 어로활동 대상어종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외부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둘째, 관광관련활동의 참여 또는 관광지 개발 주



(중 문 동)



(대 포 동)

그림 6.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

체로, 관광기능 밀집지구 내부의 중문동 수산물 조리점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면, 대포동은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중문동의 수산물 조리점은 1999년 잠수 15명중 12명의 공동출자와 보조금에 의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잠수들의 수산물조리점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중문관광단지와의 인접에서, 간접적으로는 잠수어업 외의 다른 생산활동인 밀감농사에 대한 참여 부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포동의 Hitsip 종사자의 이전 직종은 세 명이 농사이고, 나머지 두 명은 부동산 중개와 렌터카 회사 운영으로 어업 종사인 경우는 없다.

셋째, 공간적 거주양식에 있어서는 중문동의 수산물조리점 참여자들은 배후어촌에 거주함으로써 공간적으로 통합된 반면, 대포동은 공간적 통합뿐만 아니라 서귀포의 중심지와 제주시에서 통근함

으로써 거주활동의 공간적 분열이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어촌과의 관련성 정도에 있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문동 어촌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대포동보다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높고 거주활동이 어촌공간과 더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바다·해안지향 관광어촌

고산리에 포함되는 자연촌락들은 포구가 위치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곳은 도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 포구가 위치한 마을인 차귀동은 중심어촌에 해당하며, 흔히 지구내라 불리워진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련활동인 낚시는 고산리 어촌의 대표적 관광활동으로, 1998년 현재 3톤 정도의 규모인 낚시어선은 28척에 이르며, 낚시

에 참여하지 않는 5, 6톤 규모의 어로어선은 3척에 지나지 않는다. 바다낚시 참여 가구 28가구 가운데 11가구는 낚시 이외의 다른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관련활동의 병행은 특히 중심어촌 거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심어촌의 바다낚시 참여가구인 13가구 가운데 횃집, 잡화점, 민박, 오징어 판매 등 다른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9가구에 이르고, 배후어촌의 바다낚시 참여가구 15가구 가운데는 단지 2가구만이 다른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해안에 위치하는 관광기능에는 횃집, 민박, 잡화점, 낚시점 등이 있다(그림 7). 이러한 관광기능들은 대체로 다른 관광기능들과 결합되어 있다. 횃집은 5곳 가운데 3곳이 민박과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곳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련활동인 바다낚시에도 참여하고 있다. 민박으로 이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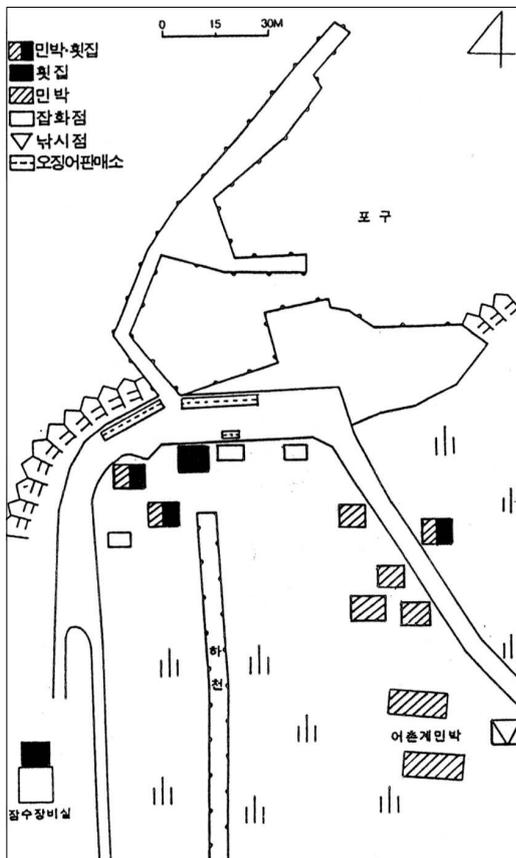


그림 7. 고산 1리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

는 곳은 '어촌계 민박'²⁵⁾ 두 곳을 포함하여 모두 9곳인데, 이 가운데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어촌계 민박을 제외한 7곳의 민박 중 6곳에서 바다낚시가 병행되며, 민박과 바다낚시를 병행하는 6곳 중 3곳은 횃집도 병행한다.

이러한 해안의 관광기능들 가운데 고산1리의 대표적 관광활동인 바다낚시와 어울리는 관광기능들은 관광관련활동간 병행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와 어울리지 않는 기능은 쇠퇴하거나 소멸되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바다낚시와 어울리는 기능은 수산물을 조리해주는 횃집, 낚시객 등의 숙박을 위한 민박, 낚시도구 판매점, 기타 잡화점 등이다. 반면, 바다 낚시라는 체험 관광과 결합되기가 어려운 관광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 관광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2.29톤과 2.89톤의 6인승 유람선이 지구내 포구로 부터 수월봉 해안, 차귀도, 와도, 당산봉 해안 등을 거치는 25~30분 정도의 해상 유람을 위해 운항되었으나 수요자 부족으로 소멸되고 말았다²⁶⁾. 이 밖에도 쇠퇴하거나 소멸된 기능으로는 바다낚시와 연계되지 않은 전문 횃집, 어촌의 조용한 휴식과는 거리가 있는 노래방 등이 있다.

그리고 관광관련활동 종사자들은 대부분 토착민이고, 관광관련활동에 종사하고자 이주한 경우 가운데는 이 곳 주민이 道外에서 거주하다 다시 귀환이주하는 경우가 3가구이며, 道內에서 처가인 이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2가구에 이른다. 이러한 관광관련활동 종사가구의 거주양식에 있어 성장한 자녀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의 거주지가 모두 고산1리이므로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은 어촌공간과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

제주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북제주군 함덕리는 1구, 2구, 3구, 4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항은 1구에 위치하고, 해수욕장은 3구와 4구에 걸쳐 있다(그림 8). 어항이 위치한 1구는 중심어촌이고, 2구, 3구, 4구 등은 배후어촌에 해당되는데²⁷⁾, 해수욕장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에는 생활의 중심이 1구에서 점차 2구와 3구 쪽으로 이동해 갔다. 해수욕장과 인접에 따른 관광관련기능의 어촌공간별 분포²⁸⁾를 살펴보면, 중심어촌에는 바다

(5) 도서 관광어촌

모슬포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마라도는 중심도시인 대정읍에 일상적 통근 또는 통학이 불가능하나 생산물의 판매나 급양 활동에 있어 하루에 왕래할 수 있으므로 연안도서³²⁾라고 할 수 있다.

관광관련활동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횃집과 민박과 낚시점(잡화점)을 병행하는 이들이 낚시용 보트를 구입하여 낚시객들을 갯바위로 안내하는 것에서만 나타난다.

어촌 주민의 관광관련활동들은 대부분 해안에서 이루어진다. 2000년 현재 동일 장소에서 단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모두 12곳으로, 민박 3곳, 횃집 2곳, 자장면집 2곳, 포장마차 2곳 등 뿐만 아니라 기념품점, 자전거 대여소, 승마장 등도 각각 1곳씩 분포한다³³⁾. 한편 복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4곳이고, 그 활동내용은 횃집과 민박과 잡화점(2곳), 횃집과 민박, 횃집과 민박과 낚시점 등이다(그림 9). 이 가운데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

은 잠수어업에 종사하던 이가 참여하는 것은 포장마차이다. 포장마차 3곳은 국토최남단비 옆에 위치해 있는데, 잠수어업 경력의 3명이 수산물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되는 수산물 가운데 멩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곳의 잠수들이 채취한 것이다.

잠수들은 대체로 관광관련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에는 잠수활동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 현재 총 10명이 참여하는 잠수어업의 주요 수산물은 소라, 전복, 성게, 오분자기 등인데, 소라가 1/2 이상이고, 전복은 1/5 정도를 차지한다. 수산물은 대부분 마라도의 횃집, 식당 등에 판매하며, 잠수어업의 소득은 한달 평균 100만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잠수어업은 연중 이루어지는데, 매달 음력 5~14일과 20~29일에³⁴⁾ 걸쳐 20일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 한달 가운데 작업이 없는 10일 동안, 10명의 잠수들 중 4명은 자녀들의 거주지인 대정읍에서 머물렀다 돌아온다. 한편, 마라도의 어업활동에 있어 어로어업은 자연조건상 기반시설인 어항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광관련활동 종사가구 24가구 가운데 이주민은 도내이주민 6가구, 도외이주민 8가구 등 모두 14가구로 전체의 58.3%를 차지하는데, 관광관련활동 참여를 위한 이주는 유람선 관광에 의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것이다. 토착민들만이 종사하는 관광관련활동은 포장마차와 오토바이 운행이고, 이주민들은 주로 종사하는 것은 횃집, 민박잡화점, 낚시 등이다.

그리고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거주지에 있어 토착민의 가구는 모두 마라도인 반면, 이주민은 14가구 중 6가구의 거주지가 마라도와 濟州島로 나누어진다. 또한 관광기능은 대체로 서쪽에 밀집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남쪽의 음식점 또는 민박 중 1곳을 제외한 7곳에 모두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보건지소」에서 '절'에 이르는 거주공간은 대체로 마라도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모두 토착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의 관광공간과 토착민의 거주공간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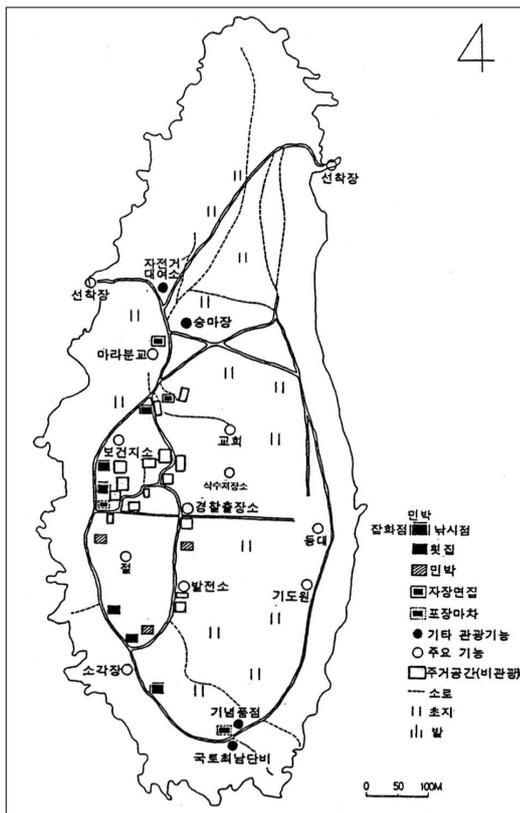


그림 9. 마라도의 관광 및 주요 기능의 분포

표 5.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별 어업활동과의 관련성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	어업활동과의 관련성
바다지향 관광어촌	어로어업의 기술 일부 필요 잡수어업의 생산물 일부 이용
해안지향 관광어촌 공동 참여 개별 참여	잡수어업의 생산물 대부분 이용 어로어업과 무관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어로어업의 기술 필요 어로어업의 생산물 일부 이용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	어로어업의 기술 필요 어로어업의 생산물 일부 이용
도시 관광어촌	잡수어업의 생산물 대부분 이용

2) 사례어촌간 비교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별 어촌과의 관련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어촌간 비교에 있어 관광기능의 어촌과의 관련성은 어업활동과의 관련성, 관광관련활동의 참여 또는 관광지 개발 주체,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 등으로써 살펴본다. 이는 곧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각 유형별 어촌과의 관련성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볼 수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으로, 이는 관광활동이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어업 생산물의 이용 정도로써 파악될 수 있다(표 5). 이 가운데 관광활동이 어업활동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어업활동 종사자에게 있어서는 어업활동과 관광관련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지향 어촌인 종달리는 맛조개 잡이 어장으로 이름이 나 있지만 이는 어업활동의 기술과는 무관하며, 단지 해안의 임시 음식점에서 잡수어업의 생산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어업활동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바다 낚시이고 해안의 수산물 조리점은 어로어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해안지향 어촌은 수산물 조리점에 공동 참여하는 중문동에서는 잡수어업의 생산물을 대부분 이용하는 반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대포동의 수산물 조리점에서는 해당 어촌의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바다낚시로 유명한 바다·해안 지향 어촌인 고산리와 해수욕장 인접 어촌인 함덕리는 어로어업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수산물 조리점에서는 바다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이용하지만 바다낚시객이 아닌 경우에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대체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일부 이용하는 셈이 된다. 도시어촌인 마라도는 어로어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기능에서 필요한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고, 마라도 잡수어업의 생산물은 이러한 수산물이 필요한 관광기능의 대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다. 결국, 바다의 관광활동 가운데 바다낚시는 어업활동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해안의 관광활동은 횃집에서는 어업활동의 생산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단지 잡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산물 조리점을 중심으로 잡수어업의 생산물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참여 주체 또는 관광지 개발 주체로, 이는 기존 어업활동종사자 또는 그 조직인 어촌계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광어촌 유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어촌 유형별 관광관련활동의 참여 또는 관광지의 개발 주체에 있어 대부분의 관광어촌 유형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토착민, 주민조직인 어촌계, 지방정부 등으로 나타난다(표 6). 토착민의 참여는 모든 관광어촌에서 나

표 6.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별 관광관련활동의 참여·관광지 개발 주체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	관광관련활동의 참여·관광지 개발 주체
바다지향 관광어촌	지방정부, 주민조직, 토착민
해안지향 관광어촌 공동 참여 개별 참여	지방정부, 주민조직, 토착민 토착민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지방정부, 주민조직, 토착민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	지방정부, 주민조직, 외지인, 토착민
도시 관광어촌	지방정부, 외지인, 토착민

타나는 반면, 외지인³⁵⁾의 참여는 도서어촌과 해수욕장 인접어촌에서 나타난다. 도서어촌과 해수욕장 인접어촌에서 외지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서어촌인 마라도는 최남단이라는 관광지에 대한 높은 인지도에서, 해수욕장 인접어촌은 제주시와의 인접에 따른 대규모의 숙박기능 입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조직인 어촌계의 참여는 해안지향의 개별참여 어촌과 도서어촌을 제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해안지향의 개별참여 어촌과 도서어촌에서 주민조직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어업종사자의 참여 부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참여는 해안지향의 개별참여 어촌을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간규모가 작은 어촌이므로 공공부문 가운데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주로 어업활동 또는 마을과 관련된 하부구조를 제공해주거나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관광관련 기능이나 시설이 입지할 곳을 결정하고, 어촌계와 더불어 관광관련 설비를 추진하며,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관광관련활동에 대한 참여 주체 또는 관광지 개발 주체에 있어 기존 어업활동종사자 또는 그 조직인 어촌계가 중심이 됨으로써 쇠퇴해가는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광어촌은 바다지향 관광어촌, 공동참여 관광기능 중심의 해안지향 관광어촌,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관광관련활동이 바다의 어업활동과 연계되거나, 어업종사자들의 공동참여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이다. 공간적 거주양식은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이 어촌공간과 통합되어 있지않을 때가 통합되어 있을 때 보다 주민소득의 역외유출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촌 내부에서의 거주활동의 통합도와 어촌의 내부와 외부간 공간체계에 따른 거주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어촌 내부에 있어서는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거주지의 공간적 통합 또는 공간적 분리로써 논의된다.

사례어촌의 대부분은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와 비

표 7.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별 공간체계에 따른 거주양식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	공간체계에 따른 거주양식
바다지향 관광어촌	공간적 통합, 공간적 분열
해안지향 관광어촌 공동 참여 개별 참여	공간적 통합 공간적 통합, 공간적 분열
바다 및 해안 지향 관광어촌	공간적 통합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	공간적 통합, 공간적 분열
도시 관광어촌	공간적 통합, 공간적 분열

중사자간 거주활동이 공간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나, 마라리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마라도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분리는 관광관련활동에 중사하는 이주민과 그렇지 않은 토착민간에서 보이는 것으로, 관광관련활동이 어촌공간에 통합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촌의 내부뿐만 아니라 어촌의 외부도 고려하는 공간체계에 따른 거주양식³⁶⁾(표 7)은 관광관련활동 중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관련활동 중사자구의 구성원 가운데 부부가 모두 어촌에 거주하는 공간적 통합만 나타나는 곳은 바다와 해안의 관광활동 연계가 대부분인 고산리와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에 공동 참여가 이루어지는 중문동 어촌이다. 그리고 고산리와 중문동을 제외한 곳에서는 공간적 통합뿐만 아니라, 관광관련활동 중사자구의 부부가운데 한 명이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공간적 분열도 나타난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 중사자의 거주활동이 어촌공간과 통합되어 관광관련활동에 의한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다와 해안의 관광활동이 연계되어야 하고, 해안의 관광관련활동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의 각 유형은 결국 그 위치가 바다 또는 해안인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유형간 차이는 관광기능의 위치가 바다 또는 해안인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관광기능의 위치가 해안인 것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례를 제외한다면 바다인 경우보다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어업활동과의 약한 연계는 관광관련활동 중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생활공간과의 통합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다의 관광기능은 해당 어촌의 생산활동과 대부분 관련되는 반면, 해안의 대표적 관광기능인 수산물 조리점은 대체로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준비해야 하므로, 어촌의 수산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차이와 더불어 관광기능의 위치가 중심어촌 외부인 해수욕장 인접 어촌에서는 해수욕장 중심이라는 특성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 어촌에서는 숙박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특성이 함께 나

타난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위치에 따른 각 유형간에는 어촌공간과의 관련성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어촌공간상의 관광기능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결론

어촌의 관광지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관광객(수요자)은 일상생활에서 대하기 어려운 바다를 만날 수 있고, 관광지 주민(공급자)은 대체로 어업과 농업의 겸업에 참여함으로써 농업활동이 전업으로 이루어지는 농촌보다 새로운 생활활동인 관광관련활동 참여가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는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연구지역인 제주도의 어촌은 모두 97곳으로 전체촌락 272곳의 35.7%이고, 관광어촌은 67곳으로 전체어촌 97곳의 69.1%에 이른다. 제주도 어촌의 공간적 특성에 따른 관광기능 분포에 있어 해안에 인접한 어촌일 수록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접근성의 유리함은 관광기능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주도 관광어촌에 대한 유형화가 어촌 외부와의 관계보다는 어촌 내부의 성격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촌 내부의 성격이란 어촌의 관광자원이며, 어촌 관광자원은 어촌공간상의 바다 또는 해안이라는 위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바다와 해안의 자연조건이 대조적인 뿐만 아니라, 체험 중심의 관광활동이 바다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위치는 바다 12곳, 해안 26곳, 바다·해안 2곳 등이다. 관광기능이 바다와 해안에 모두 위치하는 곳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나, 이들은 바다와 해안의 관광기능간 매력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기본적인 유형은 바다 지향 관광어촌, 해안 지향 관광어촌,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관광자원 위치가 인접 해수욕장인 관광어촌과 접근성에 있어 매우 불리한 도서 관광어촌 등이다. 추가되는 두 어촌의 관광기능 분

포에 있어 해수욕장 인접어촌은 낚시어선, 횡집, 민박 등이, 도서 어촌은 낚시어선, 민박 등이 위치함으로써 다른 어촌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유형구분의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가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간주될 수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사례어촌별 고찰을 통해 어촌과의 관련성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는데, 관광기능의 어촌과의 관련성은 어업활동과의 관련성, 관광관련활동의 참여·관광지 개발주체,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 등으로써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바다지향 관광어촌은 해안지향 관광어촌에 비해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높고 관광관련활동 종사자도 어촌공간과 보다 통합되어 있으며, 바다·해안 지향 관광어촌은 바다의 관광기능이 해안과 연계됨으로써 바다지향 관광어촌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과 도서 관광어촌은 다른 관광어촌과는 달리 각각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지니는데,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관광관련활동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서 관광어촌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민박이란 관광관련활동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결국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유형간에 어촌과의 관련성 차이가 나타나므로, 관광기능의 어촌공간상 위치에 따른 관광어촌 유형화는 관광어촌의 유형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註

1) 그러나 1975~1995년 기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어업가구(32.0%)가 오히려 농업가구(36.9%)보다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가와 농가의 수는 1963년은 각각 215,114가구와 2,506,899가구, 1975년은 각각 153,545가구와 2,379,058가구, 1995년은 각각 104,480가구와 1,500,745가구 등이다(농림부, 1965~1990, 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부, 1995, 농업총조사. 해양수산부, 1995, 어업총조사보고). 한편, 어가 소득은 농가 소득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정반대의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한규설, 1996, 333-366). 이에 따르면, 1993년의 경우 농림수산부(농수산부, 1994, 농림수산통계연보) 통계로는 어가소득 14,431천원이 농가소득 16,927천원 보다 적으나, 한규설의 답사결과로는 어가소득 18,150천원이 농가소득 16,927천원 보다 많다.

- 2) 1975년과 1995년의 행정 단위가 모두 면인 곳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경기도의 면은 제외하였다(통계청 인구 주택 총조사 보고서 1975, 1995).
- 3) 2000년 겸업 어가는 51,037 가구로 전업 어가 30,742 가구의 1.66배인 반면, 겸업 농가는 455,949 가구로 전업 농가 928,144 가구의 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 4) 어가와 농가간 서비스업 정도를 겸업 소득에 대한 서비스업 소득의 비율 추이로써 비교해보면, 1985~2000년의 경우 어가는 2.8%에서 19.2%로 증가한 반면, 농가는 40.1%에서 29.7%로 감소하였다(농림부, 농림통계연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 이러한 어가의 서비스업 소득 증가는 관광관련활동 참여 확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소규모어항 존재의 지표는 어항의 기본시설인 방파제나 선착장 가운데 어느 하나는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중심촌락 가운데 어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심촌락이란 초등학교 학구 단위의 기초 생활권의 중심에 해당되는 마을이다(류우익, 1988, 11-23).
- 7) 생산을 포함하는 생활의 공간단위가 지역이지만 여기에서는 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생활의 공간단위도 지역이라 하고자 한다.
- 8) 두 어촌간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농촌지역 어촌은 어촌지역 어촌과는 달리 어업관련활동의 중심이 어촌중심도시이므로 생활과 생산관련활동의 중심도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활과 생산 관련활동의 중심도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통행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지역의식의 공간적 분열을 가져온다.
- 9) 어촌 생활공간은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으로 구성되는데, 행정리 또는 법정동 단위의 어촌은 중심어촌은 포함되나 배후어촌이 명확하게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후어촌의 어업종사자 비중은 중심어촌보다 매우 적으므로 이차 자료 분석을 위한 어촌의 단위를 행정리 또는 법정동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 10) 어항을 끼고 있는 소도읍은 어촌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제주도 중심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규모와 기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어촌에 포함시켰다.
- 11) 제주도 촌락 가운데 해안에 인접한 행정리·법정동은 113 곳이다. 이 가운데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제주시의 내도동 삼양2동, 서귀포시의 서호동 호근동 월평동 하원동 상예동 색달동, 북제주군의 대림리 금동리, 남제주군의 감산리 하모2리 일과1리 영락리 무릉1리 고성리 등 모두 16곳이다(제민일보, "제주의 포구," 1992년 6월 ~ 1995년 1월).
- 12) 예컨대, 배후어촌의 위치라는 해안인접 정도와 간선도로의 통과 어촌이라는 접근성 차이는 사례로 선정될 어촌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그림은 배후어촌의 해안인접 여부와 간선도로의 통과 어촌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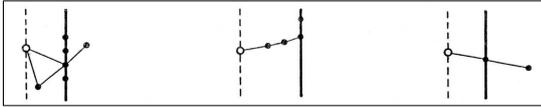
(---- 해안선 — 간선도로 — 지선도로 ○ 중심어촌 ● 배후어촌)

* 중문동과 대포동은 중심어촌이 아니라 어업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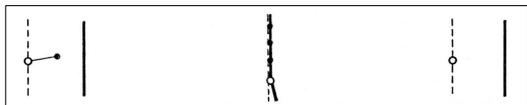
기능이 위치하는 공간임.

** 배후어촌은 중심어촌의 행정리 또는 법정동 안에 포함되는 자연촌락으로 봄.

① 고산리, 종달리, 중문동 등은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지 않으며, 간선도로가 배후어촌을 통과한다.



- <고산리>
- <종달리>
- <중문동>
- ② 대포동은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지 않으며, 간선도로가 어촌공간 외부를 통과한다.
- ③ 함덕리는 배후어촌이 해안에 인접하며, 간선도로가 중심어촌을 통과한다.
- ④ 마라리는 배후어촌이 존재하지 않으며, 간선도로가 어촌공간 외부를 통과한다.



- <대포동>
- <함덕리>
- <마라리>
- 13) 시·군별 중심어촌 1곳 당 배후어촌 수(배후어촌 수 / 중심어촌 수)는 제주시 0.57(4/7), 서귀포시 0.86(6/7), 북제주군 2.37(116/49), 남제주군 1.44(49/34) 등으로 북제주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각 시군 통계연보, 1999년).
- 14) 해안지대와 중산간지대의 구분은 취락형태의 분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집촌과 산촌의 분포가 구분되는 해발고도는 100m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목지 옹호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1995, 248-253), 이 고도는 집촌의 해안지대와 산촌의 중산간지대를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 15) 각 지대별 간선도로는 해안지대의 '일주도로', 중산간지대의 '동·서부 관광도로'와 '남조로', 산간지대의 '5.16도로'와 '1100도로' 등으로 구분된다.
- 16) 주 11)의 경우와 같다.
- 17) 한편, 관광관련기능간 분포의 연관성도 관광관련기능의 분포 특성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낚시어선과 횃집간의 연관성이다. 낚시 활동이 빈번한 곳에 대개 횃집도 위치하는 반면, 횃집이 분포한다고 해서 낚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있다. 그리고, 낚시어선과 횃집이 모두 위치하는 어촌은 소도읍의 중심어촌, 낚시터 어촌, 해수욕장 인접어촌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해수욕장 인접어촌은 낚시어선, 횃집, 민박 등이 모두 분포하고, 도서 어촌은 낚시어선과 민박이 연계되어 있다. 두 어촌에 모두 분포하는 낚시어선과 민박의 시간성은 어촌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해수욕장 인접 어촌은 일시적인 반면 도서어촌은 상시적이다.
- 18) 낚시어선, 횃집 등의 관광기능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분포하더라도 관광어촌으로 보았다.
- 19) 해안인접 정도의 세 경우와 접근성 차이의 세 경우의 조합에 의한 전체 경우의 수는 아홉이나, 해안인

접 정도에 있어 배후어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접근성에 있어 간선도로는 배후어촌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아홉에서 하나가 제외된 여덟이 된다.

- 20) 이 논문의 수산물 조리점은 넓게는 횃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는 횃집 이외의 수산물 음식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21) <표 3>과 <표 4>의 자료 출처와 같음.
- 22) 민박은 관광보조기능이므로 관광어촌 유형구분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 23) 대표적으로,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이 분포하는 곳은 해안에 관광기능이 위치하더라도 바다의 수산물 채취·채포라는 관광활동의 특화도가 해안에 비해 매우 높으므로 바다지향 어촌으로 볼 수 있다.
- 24) 썰물 때 걸 모래를 한번 쓸어내면 송송 뿜린 직경 1cm미만의 구멍이 나오는데 이 곳에 맛소금을 뿌리면 맛조개가 입을 벌리며 더듬이를 드러낸다. 이 때 더듬이를 재빨리 잡고 호미로 모래를 훑어내면 맛조개가 올라온다 (동아일보 1996년 7월 24일).
- 25) 민박시설 가운데 어촌계가 운영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어 여름철에는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어촌계 민박시설은 민박건물 네개의 동과 상가건물 한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박건물은 수용인원 100명의 규모로 관리인 2명을 두고 있고, 상가건물은 임대를 주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해 199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어촌계 민박시설은 설비비용이 8억 5천만원이고, 비용부담은 국고 50%, 도비 45%, 어촌계원 부담 5% 등이다 1997년 현재 총 175명인 어촌계원 중에는 2/3정도인 118명이 참여하고 있고, 1999년에 처음으로 민박시설에 참여한 어촌계원에게 30만원씩 분배되었다. 한편,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횃집 2개, 점포 2개, 낚시어선 1척 등은 어촌계의 공동 운영이 아니라, 개인에게 임대된 상태이다.
- 26) 제민일보 1993년 7월 13일자
- 27) 1~4구는 공식적인 자연촌락은 아니지만, 각 구별로 마을조직이 존재하고, 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으로는 마을처럼 구분되고 있다. 따라서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을 구분함에 있어서도 구를 공간적 단위로 삼았다.
- 28) 해수욕장과 관련된 관광관련기능 위치는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으로, 배후어촌에 있어서는 해수욕장과 중심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심어촌과 배후어촌의 구분은 해수욕장이 위치한 배후어촌과 그렇지 않은 중심어촌으로 차이를 보이고, 배후어촌에 있어 해수욕장과 중심공간의 구분은 관광기능 수요자에 있어 해수욕장은 관광객이 대부분인 반면, 중심공간은 주민과 관광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 29) 한편, 콘도시설은 '관광지구 개발의 일환으로서 공동사업자인 함덕리와 (주)신성개발에 의해 1996년 착공되었으나 1998년 이후 신성개발의 자금난 등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 30) 해수욕장의 바다낚시를 위한 임시계류장, 구름다리, 진입로 등이 1990년대 중반에 완공되었는데, 이의

- 비용 부담은 국고 50%, 도비 45%, 어촌계원 부담 5% 등으로 이루어졌다.
- 31) 제주시에서 통근하는 경우는 대규모 호텔의 전체 직원 20여명 가운데 5~6명 정도이다.
 - 32) 연안도서는 중심도시와의 거리에 있어 일상적 통행이 가능한 해안도시와 1일 통행이 불가능한 낙도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였다.
 - 33) 1990년대 중반이후 대규모 유람선 관광이 시작되면서 관광관련활동을 위한 시설물들이 난립하게 된 것은 60평이하 또는 2층이하 건축물은 신고 없이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에 마라도 전체가 건축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행위가 제한되게 되었다(제민일보, 2000년 5월 18일자, 2000년 9월 1일자).
 - 34) 음력 5~14일과 20~29일은 조류의 주기상 열한물에서 다섯물까지 해당된다.
 - 35) 이전 거주지가 제주도가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
 - 36) 중심지체계에 따른 공간적 거주양식의 기본적 형태는 사회적 거주단위인 가구 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간적 통합과, 상이한 공간에 거주하는 공간적 분열로 나눌 수 있다. 즉, 거주 사회단위가 공간적 단위로 일치하면 거주 공간적 통합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간적 분열이 된다(류우익, 1988, 9-10). 그런데 관광관련활동과 관련된 공간적 거주양식은 가구 구성원 가운데 관광관련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관련활동 종사자의 중심지체계에 따른 공간적 거주양식은 관광어촌과 그 밖에서의 거주 정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부부가 관광어촌에 거주하는 집단이고(공간적 통합), 다른 하나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관광어촌에 거주하고, 한 사람은 관광어촌 외부의 제주도에서 역동근거거나 거주하는 집단이다(공간적 분열).

참고문헌

김부성, 1996, 친수만 지역의 어촌분포와 변화, 문화역사지리, 8, 19-36.

김일기, 1998, 관광지화에 따른 동해안 어촌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10, 15-37.

목지 오홍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1995,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송경언, 2002, 제주도 어촌의 관광지화와 공간이용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우익, 1988, 농어촌지역하위중심지체계의 개선방안, 제6차 농어촌지역종합개발워크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3.

윤응범, 1987, 동해안 어촌의 지리적 연구 -양양군 현남면 남에리를 중심으로-, 웅진지리, 13, 1-25.

이기욱, 1995,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문중, 1996, 촌락지리학 50년(1945~1995)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2), 231-232.

이재천, 1993, 관광어촌의 형성과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경수 편, 1992, 한국 어촌의 저발전과 적응, 집문당.

한규실, 1996, 어촌 경제구조의 관찰: 그 제도와 생산을 중심으로, 참관

柿本典昭, 1987, 漁村研究: 水産地理學への道標 大明堂.

淡野明彦, 1998, 觀光地域の形成と現代的課題, 古今書院

齊藤輝二, 1981, 漁業集落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漁業集落の空間構造の解明, 京都大學博士學位申請論文.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pp.5-12.

Hall, C. M., Lew, A. A., 1998,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Longman.

Kakimoto, N., 1987, Fishing communities and the geography of fishery,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60(Ser.B)(2), pp.203-211.

Keller, C. P., 1987,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8(3), pp.20-32.

Lockhart, D. G., Drakakis-Smith, D. 1997, *Island Tourism: Trends and Prospects*, Pinter, London.

Pearce, D., 199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Wiley.

Ring er, G. (ed.), *Destinations: Cultural Landscapes of Tourism*, Routledge.

Young, B., 1983, Touristization of traditional Maltese fishing-farming villages, *Tourism Management*, 4(1), pp.35-41.

(집수 : 2003. 2. 14, 채택 : 2003. 7. 10)